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제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도미화

요약

본 연구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과 실천방안을 질적 탐색의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의 연구 대상자로 총 12명을 구성하였고, 대상자는 모두 기독교인으로 기독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교사 4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였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실재를 탐색하며,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면담자료 및 각종 문서자료는 Seidman(2012)이 제시한 면담에 대한 귀납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봄으로 현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제한점들을 알아보고 현장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목적, 내용, 방법, 운영의 면에서 기독교적 성격을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구체성과 방법적 정교성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부설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주제어 기독교 유아교육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Christ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만 3세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로서, 유치원의 설립주체에 따라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유아교육법에 의거한 유치원 외의 다양한 특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영어 유치원, 숲 유치원, 몬테소리, 발도르프 유치원, 놀이 학교 등 유아교육기관 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과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변화하는 유아교육기관이 현저히 급증하고 있음에도 종교 단체에 의한 특히 기독교 부설 유치원은 갈수록 더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문철·이동숙·윤충열, 2005).

처음 교육의 시작은 성서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uther는 종교개혁자로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 개신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함께 수행하였다는 면에서 그 교육사적 의미를 평가할 수 있고(양금희, 2011), 17C 교육자 Comenius(2007)는 인간이 인간답게 형성될 수 있는 시기로서 유년기를 강조하여 바람직한 지식, 덕성, 신앙을 기르기 위해 교육을 유아기 때부터 해야 함을 제시해 유아교육의 사상적 기초를 확립했다고 볼 수 있다.

Comenius의 영향을 받은 Froebel도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최초의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설립하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신, 인간, 자연의 통합을 이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아에게 자연 그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1914년 선교사 Lee에 의해 이화유치원이 기독교적 기초를 가지고 세워졌고, 1916년 정동교회 중앙유치원이 개원되고 이어 정신유치원, 배화유치원, 영화유치원 등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 유치원들이 설립되었다(이영옥, 2006). 그러면서 1982년 12월의 유아교육진흥법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라는 역사적 변천 속에서 유아교육기관은 양적성장과 학문적 논의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은 실제에 있어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반 유아교육 안에서 기독교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고(조정아, 2003), 일반 유아교육과정 안에 예배의 형식만을 갖추어 기독교 유아교육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왔다(김성수, 1996; 김정섭, 1988; 조정아·조은진, 2008). 또 기독교 교육의 이름은 걸려 있어도 목적, 이념 등에 따라 실제 교육, 일반 유아교육 커리큘럼과 접목이 어려운 현상이 대부분인 것이다. 실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전반적인 교육과정, 기독교 교육에 대한 내용 및 방법은 일반 교육과 혼합이 되어 기독교 유아교육이라고 명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강란혜, 2003; 이천영, 2005)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있는 교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함을 말하며, 기독교 유아교육 관련서적이나 교사를 위한 기독교 유아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기독교 철학을 목표로 두고 있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조차도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인식이 부족함을 선행연구는 나타내주고 있다(오미영, 2007; 이선희·송영란, 1996; 정희영, 1998; 조미경, 2000; 조정아, 2003). 또한 현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실제 기독교적 내용 및 방법은 일반 교육과 혼합 되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김동춘, 2008).

지금까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위한 선행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어 왔지만(김윤희, 2008; 오미영, 2007; 이선희·송영란, 1996; 정희영, 1998; 조미경, 2000; 조정아, 2003; 최윤정, 2006)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문헌연구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태조사로만 그치며, 실제적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안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또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도권지역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져 기독교 유아교육의 실태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제와 발전방안을 질적 탐색의 방법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시각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제한점들을 알아보고 현장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발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바람직한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모형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제와 발전방안 탐색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과정 실체는 어떠한가?
- 2)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발전방안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연구 대상으로 총 12명을 구성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2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원장 2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교사 4명,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탐색하며,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위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주기적인 면담도 실시하였다.

면담자 섭외 시 사전에 면담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드린 후, 면담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IRB 신청을 거친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운영실제,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기독교 부설 유아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실제와 발전방안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자의 구체적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직업	전공	학력
A	기독교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남	63	유아교육과 교수	유아교육	대학원 졸
B	기독교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남	42	유아교육 겸임교수	유아교육	대학원 졸
C	교회 부설 유치원 원장	여	39	A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학부 졸
D	교회 부설 유치원 원장	여	36	B유치원 원장	유아교육	학부 졸
E	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	여	32	C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학부 졸
F	교회 부설 어린이집 교사	여	29	D어린이집 교사	유아교육	학부 졸
G	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	여	32	E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학부 졸
H	교회 부설 유치원 교사	여	27	F유치원 교사	유아교육	학부 졸
I	교회 부설 어린이집 학부모	여	40	G학부모 주부	유아교육	학부 졸

J	교회 부설 어린이집 학부모	여	38	H학부모 주부		학부 졸
K	교회 부설 유치원 학부모	여	36	I학부모 주부	음악	학부 졸
L	교회 부설 유치원 학부모	여	35	J학부모 주부	영문	학부 졸

<표 1> 연구 참여자 기본 정보

2. 자료수집

1) 문헌고찰

유아교육,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유아교육,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현장 연구와 관련된 기독교 논문 및 관련 서적과 성경을 비롯한 각종 문헌을 수집하고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구 문제들을 모색하였다.

2) 심층면접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심층면담에 관련된 강의 수강 및 훈련을 받은 후 실시하고, 면담 시작 시기, 시행기간, 종료에 관련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여 제시하고 실시되었다. 관련 기독교 대학 교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원장,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담을 시행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분석하며, 그 데이터를 토대로 기독교 유아교육관의 실제와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모색 하였다. 면담시간은 60-90분 정도 일대일 심층면담을 진행 하였다. 면담을 할 때에 정보제공자에게 먼저 동의를 구한 뒤 녹음을 하고 녹취된 것으로 면담 자료를 만들었다.

면담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부분 또한 면밀히 조사해야 하므로 연구자가 질문 목록을 가지고 면담에 임하더라도 정보 제공자의 인도를 따르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 (Hatch, 2008).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은 Seidman(2012)이 제시한 면담에 대한 귀납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제시한 유형적 분석을 활용하고 분석의 과정은 Seidman의 면담 분석을 통해 질적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과정은 다음 <표 2>과 같이 이루어졌다.

단계	과정
1.	자료 관리하기
2.	면담과 자료의 분석 과정을 분리하기
3.	면담 녹음하기
4.	면담 테이프 전사하기
5.	원문의 검토, 축소와 분석

5-(1).	본문에서 관심 있는 것에 표시하기
6.	면담 자료 공유하기
6-(1).	프로파일을 정교화 하는 단계
6-(2).	앞의 방식으로서의 프로파일
7.	주제를 연결하고 분석하기
8.	자료 해석하기

<표 2> 유형적 분석의 절차(Seidman, 2012).

Ⅲ. 연구 결과

1.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유아교육과정 실태

1)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의 교육목적

(1) 복음전도의 적극성을 고민하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가져야 하는 목적으로 일관되게 제시된 내용은 ‘복음전도’와 ‘선교’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교회가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자가 그리스도인, 교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기독교 유아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설립목적은 다분히 선교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믿는 유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유아들도 받아서 기독교 문화가 좋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안정적으로 믿음적인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합니다.

(L교수 심층면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죠. 믿지 않은 유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믿는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 키워내는 것이겠지요...

(A원장 심층면담)

이러한 본질적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목적대로 운영 방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다음의 사례들을 보면 목적에 대한 실제 실천이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적과 실천의 문제점을 제기한 기존 연구(이선희·송영란, 1996; 조미경, 2000)들과 일관적 특성을 보인다.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아이들의 복음을 위해 설립되었어요...

(D교사 심층면담)

기독교는 복음 아니면 아니죠. 아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시키는 것 대부분의 교회 부설이 이런 목적이 아닐까요...

(H학부모 심층면담)

선교를 하면 일단 내줘야 하는 건... 다른 일반 유아교육기관이랑 똑같고, 믿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솔직히 차이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I학부모 심층면담)

학부모와 교사들조차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찬양, 기도를 하면서도 복음전도의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졌다. 이러한 신앙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실천하지만 교사들조차도 설립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현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 유아교육이 흘러가고 있는지,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신앙양육인과 인재육성 사이에 서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 다른 목적은 신앙양육의 목적이 있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자녀, 다음세대를 키워나가는 목적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믿음을 전제로 해서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기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전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아기부터 제자으로써 키워나가는 교육, 그런 뒷받침되는 목적이 있겠죠. 교육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B원장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은 없어요, 누리과정하고, 그 속에서 그냥 다양한 것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다방면에서 뛰어나야 한다고 활동지, 학습지를 다양하게 많이 시켜요... 한번 씩 교사들끼리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누기도 해요. 지금 이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과 제대로 양육 받고 자라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은 하게 되죠.

(E교사 심층면담)

한번은 교재를 가지고 원장님께 이것은 만3세 연령 아이들이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얘기에 원장님께서 “선생님...우리 원의 아이들이 다른 일반 기관 아이들 보다 뒤떨어지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이 안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키워 내야하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맞나요?

(F교사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육의 목적은 단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는데 있지 않으며, 유아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돕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Geene, 2000). 이러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세워져야 할 유아들이 현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지도자를 기르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목적대로 잘 운영되려면 그 기관의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기독교적인 지도자의 소양을 배우고 있는지...

(K교수 심층면담)

하나님 안에서 다음세대를 키워가는 목적을 가지는 우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진 유아들을 우리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세계관을 통해 양육, 교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보아야 할 것이다.

(3) 인성교육을 강조하다

유아기 때의 인성교육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기독교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기관의 교육목적 등이 인성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이라면 분명 일반 유아교육기관과 달라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의 목적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인지, 일반 도덕교육인지를 우리는 차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교, 전도 보다는...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그것을 통해 안 믿는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아무래도 성품을 강조하는 기독교라 연계는 되는 것 같은데, 신앙적인 부분이나 요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F교사 심층면담)

신앙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적인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 교육과정을 가지고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재해석을 하는 곳은 거의 없죠. 그것에 대해 교육을 안 받았고 받아야 하지만 너무 실정이랑 맞지 않아요.

(D교사 심층면담)

(4) 사회적 봉사실천을 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곧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그렇기에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사회적 봉사실천의 의미로 기관을 설립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이 땅위에서 실현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박신경, 2008).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견학이라던, 종종 원의 재정으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A원장 심층면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원비를 못 냈던 한 유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그냥 안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E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교회의 작은 재정을 통해 사회에 봉사의 실천들이 이루어지지만, 재정을 넘어 사회에서 비취고 바라보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인식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실천의 역할을 감당할 것 또한 기대해 본다.

2)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내용

(1) 예배, 기도, 찬양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유아교육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정희영 외,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교수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드러지는 예배, 기도, 찬양 등의 기독교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만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이정미, 2005; 조미경, 2000; 한승중, 2006)와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 구분하기,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은 없어요...

(E교사 심층면담)

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이 누리교육과정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침모임 가운데 기도로 시작을 하며, 매주 드러지는 예배, 또한 찬양을 배우기도하며, 찬양을 자주 접하는 이러한 부분적인 현상으로 기독교 유아교육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 당연히 기독교 유아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정도예요. 매

달 성경말씀이 있어서 외우고 해요.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

(F교사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육이 단순히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하며, 예배의 형식을 갖추는 표면적인 종교적 행위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조정아, 2004), 유아교육의 주체와 대상에 대한 이해, 유아교육의 기초와 내용 및 방법, 운영, 평가 등 유아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지 않으면 진정한 기독교 유아교육이라 평가 할 수 없다(한승중, 2006). 하지만 현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 기도를 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경이야기, 암송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다

매일의 찬양과 기도는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통합이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주 1회나, 매달 1회 정도의 성경이야기나 암송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은 특정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누리교육과정이나 프로젝트의 수업 등은 기독교적 내용들이 다소 혼합되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게 나타남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말해준다.

기독교적 요소나 성경이야기 등 어떠한 색채를 띄는 것은 중간 중간의 교사의 재량으로 넣죠. 교사가 신앙이 없다면 그냥 일반 원의 프로젝트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사가 신앙이 있다면 색채를 띄면서 수업은 이루어 저요...

(A원장 심층면담)

유치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기독교 유아교육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정도예요... 매달 성경말씀이 있어서 외우고 해요...

(F교사 심층면담)

또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가운데 부분적으로 말씀 액자를 붙인다든지, 성경 이야기의 내용들을 제시해, 유아들이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며, 또한 도서관에 소정의 성경동화책이 구비되어 있어 유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교실 안에 책 보기영역에서 자유선택활동 시 유아의 의지에 따라 동화를 볼 수 있음을 제시한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기독교 유아교육이란, 부분적으로 성경이야기나 암송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함을 제시하며, 부분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만을 가지고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다고 말 할 수 없다는 앞의 선행연구(김성수, 1996; 조정아, 2004)를 통해서도 잘 비추어진다.

(3) 인성과 성품을 강조하다

성격형성이 발달되는 이 유아기의 시기에 인성교육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의 성품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박갑숙, 2009; 이영숙, 2010) 선행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좋은 나무 성품 학교의 성품 프로그램은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연구되고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 기독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다. 분명 이 성품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앞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품학교를 하는 것, 일부분이긴 하지만 성품교육도 기독교 교육이니 하고 있는 거죠... 성품이 위주가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거죠...
(D교사 심층면담)

누리교육과정을 그대로 하며, 인성교육 교재를 가지고서 순종, 경청, 사랑, 예절 등 한 달을 주제로 해서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요... 성품을 강조하는 기독교라 연계는 되는 것 같은데, 신앙적인 부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F교사 심층면담)

(4) 기독교 절기를 실천하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부분적으로 그 안에 기독교 절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연간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인 부활절, 성탄절이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유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도록 흘러 보내고 있다고 제시한다.

기본적으로 예배를 가진다거나 행사마다 절기마다 기독교 행사를 해요. 믿지 않는 유아들이 왔을 때, 믿는 아이들 믿는 교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것들이 있겠죠. 절기에 맞춰 성경이야기를 들려주면 유아들은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사와의 상호작용가운데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거나...
(B원장 심층면담)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생일,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성탄행사와 산타행사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루어지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조차도 함께 이루어져 유아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기독교인 교사들조차도 이것에 대한 의문 보다는 하나의 행사로 여기는 가벼운 생각들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부활절은 달걀을 만들고 바구니 만들어 의미를 설명해요. 성탄절은 각 반에서 간략히 성탄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산타행사를 하죠. 뭐 절기를 지키기도 하면서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요.
(F교사 심층면담)

이렇듯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지켜지는 절기 또한 의미 전달하며, 하나의 행사를 진행하기에 급

급하게 돌아가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모습들이 제시되었다.

3)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법 및 운영

(1) 기독교적 성격 드러내기가 힘들다

기독교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믿지 않는 유아들도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 유아들을 위한 배려로 인해 기독교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스러워한다. 사실 설립목적은 복음전도, 선교의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믿지 않는 유아들을 배려하며, 기관을 떠나게 될 우려로 인해 눈치를 보며 복음을 선포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일반 국가수준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기독교적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절기를 지키며 그 의미를 간단히 전달한다든지, 식사 전 기도나 아침모임시간에 찬양을 한다든지 부분적인 기독교적 요소들이 첨부됨을 나타내 이러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은 적당한 선에서 신앙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시한다.

복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강압적이 아닌 자연스레 흘러 보내려다보니 신앙의 요소들이 조금씩 빠져가는 느낌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잘 못되었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색채를 강조하면 믿지 않는 유아들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떠나게 되죠.

(A원장 심층면담)

무언가 뚜렷한 기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아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보내지만 일반 유아교육기관을 보내는 생각이 들만큼 그래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이루어지나? 하는 의문과 아쉬움은 있어요. 요즘 선교원도 다 없어지니...

(H학부모 심층면담)

이정미(2005)는 기독교 유아교육이란 유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세계관 안에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운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믿지 않는 유아들을 위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제시되고 있다.

(2) 부족한 재정과 환경을 이겨내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루하루 급급히 살아가는 것 같다. J학부모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유아기의 시기에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아쉬움을 말하며, H학부모는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을 지적한다. A원장 또한 교회건물은 큰 대형 교회인데 부설기관인 유아교육기관은 환경이 부실함을 말하며 교회가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이윤을 남기려하기에 아까다 보니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제시해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밥 먹는데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교회건물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제일 보호 받아야 할 아이들의 공간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H학부모 심층면담)

모든 교사들이 한 호봉 께였어요. 유치원 사정이 어려우니까... 유치원 일을 벗어나 교회 일까지 시켜요. 수업준비도 제대로 못하는데... 바쁘긴 엄청 바빠요.

(C교사 심층면담)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유지, 보수 그리고 이익을 남겨야 하니깐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요. 이익을 남기지 않은 원감은 자연스레 능력 없는 원감이 되어 버리죠...

(I학부모 심층면담)

(3) 교사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기독교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대부분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조차도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해 기독교인 교사들의 재량에 의지해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 예배 빼고는 유아들은 각 담임교사의 재량껏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담임교사마다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죠. 또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도계신데...

(A원장 심층면담)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은 없어요. 믿음을 가진 선생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니깐, 개인 신앙도 커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교사교육은 없어요.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과정도 한계가 있어요.

(B원장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의 채용조건은 비기독교인도 채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 유치원의 교사채용이 어려워지다 보니 믿지 않은 교사를 채용하고, 채용조건으로 교회의 출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교회 출석의 지속성은 어려운 현실이 되어 진다. 이렇게 일관적이지 않게 운영이 되는 기독교 유아교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기준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만 알고, 신앙의 정도나 깊이는 모르니까요. 일단은 믿는 사람을 채용하지만 없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지 않은 교사를 채용하면...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대다수 각 담임교사의 재량껏 하는데...

(E교사 심층면담)

교사 채용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니다. 현 실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최대한 믿는 사람을 채용하고 싶지만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믿지 않는 교사들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거죠.

(D교사 심층면담)

아이들이 아프면 선생님들이 기도해주시고 약을 먹이는 것. 보고 자라는 이러한 잠재력이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이 한 마디 내뱉는 말들이 신앙의 말인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뱉는 말인지 아이들이 무의식 속에 썩어있어 자라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많은 것 가르치고, 좋은 시설 갖추고 그런 것 쫓아서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 삶 속에 적당히 해도 되는 타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게 기관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J학부모 심층면담)

이렇듯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교사의 비중이 크다. 각 기관마다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이 있지만 이것을 풀어내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다. 물론 여러 가지의 세미나나 연수, 교육 등을 통해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기관 안에서 교육의 요소들이 함께 협력해 이루어져 간다면 더 큰 발전의 교육 방향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목적이나 내용, 방법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세미나, 연수 등이 부족하며, 또한 믿지 않는 교사를 채용하면서 기관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재량껏 이루어지는 안타까움이 제시되고 있다.

(4) 부족한 기독교 유아교육 이해를 극복하기 힘들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을 국가수준 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에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 첨가하여 가르치거나 매주 드려지는 예배, 찬양, 기도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정희영, 1998).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도 교사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매주 드리는 예배나 기독교적 요소를 몇 가지 더 첨부하며 기독교 유아교육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에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 첨가하여 가르치는 것조차도 기독교 유아교사들은 어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마음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 또 문제들은 있지만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고쳐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많음을 교사들은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 유치원이 사실 이화유치원이라고 해서 유치원계를 선교사님들이 이끌어갔잖아요. 시간이 지난 지금은 많은 기독교유치원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내실을 따졌을 때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B원장 심층면담)

교육청 세미나나 교사교육은 가지만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은 없어요... 처음에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하는데 몸이 지치니까 소명이고 뭐고 생각이 안 들죠...

(C교사 심층면담)

일반 유아교육기관이랑 달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평가도 받아야 하는데...

(E교사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며 자료도 없어 기독교 유아교육의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들끼리 모여도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개인의 삶속에 말씀 나누고, 기도제목 나누고, 또한 유아를 어떻게 지도할 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풀어낼 수 없는 답답함이 그냥 또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다. 또한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이란 것이 어렵긴 하지만 생소하진 않았다. 하지만 일반 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은 기독교 유아교육의 접근 방법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적 신앙요소에만 의존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신앙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예배, 찬양, 기도만을 접근함을 제시한다.

교사교육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현실과는 달라요...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

(D교사 심층면담)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대학이라 그런지 뚜렷한 기독교 유아교육이 있었는데, 저도 많이 변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관이 바르게 잡혀있다면 뿌리가 바르게 꽃혀 있다면 사회 나가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진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E교사 심층면담)

일반 누리교육과정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함이 어려운 시점에 신앙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 또한 기독교 유아교사들에게는 큰 어려움이라고 제시한다. 대학의 학부수업 과정에도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고,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연수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을 토대로 교육을 하고 있기에 그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준비하고, 연구하는 것만으로 벽차다고 제시한다. 또한 자신들이 기독교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독교 유아교육을 한다고 생각해왔고, 맞는지 아닌지 누구도 얘기하며 평가하지 못함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5) 교회와의 부족한 연계와 갈등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적인 감소가 아니라 기독교계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정희영, 2007). 처음 교회에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세울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목적에 따른 관심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지원하는 노력이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 진다. 복음, 선교의 목적에서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기려는 수익사업을 생각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교사의 급여를 조정하는 등의 교사복지의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다시 한 번 교회가 처음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어진 목적과 그 의미를 다시 재점검 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형교회이다 보니 담임목사님이 담당하시진 않으시고, 담당 장로님이 계세요. 한번 씩 오시는데, 회계검사를 잘 하시죠... 교회 규모에 따라서 부설 유치원이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사 분들이 많아요.

(A원장 심층면담)

총 책임은 목사님이시지만, 서류라든지 결재부분은 장로님께서 관여를 많이 하십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다 원장님이 하시고, 재정적인 부분은 교회에서 관여를 하죠. 교회에서 재정을 지원하니깐 그런 보고는 장로님께 보고 드리는 거죠.

(D교사 심층면담)

유아교육기관에서 총 감시감독자 흔히 원장, 이사장이라 직분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대개 담임목사님이나 장로님이시다. 또한 원장님의 담임 목사님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원장님은 따로 계시다. 그 중간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신데 대개 장로님들 중에는 교육관련 된 일을 하시거나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교육목적, 내용, 방법 보다는 행정에 관련 재정부분의 사항들을 감시 감독할 뿐 인 것이다.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에 관련된 확인을 받는 등의 관계만 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원장님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원하는 수익사업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세요. 큰 행사가 있을 때, 인사말이나 시작예배, 기도 정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F교사 심층면담)

원장님이 계시지만 장로님이 회계부분, 결재를 철저히 합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바지원장이죠. 회식할 때 오셔서 기도해 주고, 아주 특별한날 오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릴 때 말씀은 주로 부목사님 하세요. 원장님이 장로님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요. 그래야 원장님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C교사 심층면담)

2.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발전방안

1) 누리과정의 통합과 차별화하기

기독교 유아교육기관들의 경우, 처음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육을 바탕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교수-학습의 과정, 방법론 등에서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다(김동춘, 2008). 물론 세상의 학문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초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빚대어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함께 그 분을 증거하며 발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늘 말씀 앞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세상의 학문을 제대로 알고, 그 학문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일반 학문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 유아교육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교과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설명이라든지, 해설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지침서가 부족하니깐 앞으로 이런 점에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K교수 심층면담)

2) 물리적 환경 변화하기

대체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바깥놀이 시설이 일반 유아교육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교회 부설 기관으로 교회 건물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건물 밖은 교회를 위한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에 아이들이 뛰어 놀 바깥놀이터 조차도 소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식물이나 자연생태지향적인 환경을 구성함으로써 아이들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K교수 심층면담)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공간 속에서 참 열악함을 느낍니다... 봄이 되면 씨도 뿌리고, 꽃이 피면 관찰도 하며, 배추도 직접심어도 보고 뽑아도 보고 그 수확

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삶속에서 느껴지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수확을 통해 얻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사...

(A원장 심층면담)

3) 기독교 유아교사 양성 및 채용하기

나이가 어릴수록 유아들은 스스로 판단이 어렵고 또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모방하거나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고려된 교육행위가 요청된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유아교육기관뿐 아니라, 교사의 전 인격과 가르침은 학생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문순애, 2010). 그렇기에 기독교 유아교사는 더욱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유아교사로서 양성되어야 함을 아래 사례들로 제시된다.

교사들이 세례교인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교육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이 발전이 되려면 가장 기본부터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C교사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사는 기독교 유아교육의 철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이념에 동참을 하면서 실제로 구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L교수 심층면담)

각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원장님들이 기독교 유아교사연합회를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A원장 심층면담)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교사교육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의 교수님들, 기독교 유아교육에서 연구를 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여 교사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며,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각 기독교 유아교육의 책임자, 당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교단 중심의 교사교육과 연계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교수 심층면담)

4)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연수 및 교육하기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재교구나 정보자료들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기독교 유아교육을 실현함에 있어 자료부족도 있지만, 연수나 세미나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또한 없다. 지금 현 국가교육수준인 누리교육과정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의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독교 유아교사들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의 방안을 제시한다.

기독교 유아교육은 무엇이다. 라는 정의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명확하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정확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교사 심층면담)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겠죠. 지금은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거의 없다보니 아쉬움이 크고, 기독교 유아교육의 연구 현장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B원장 심층면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현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독교 유아교육의 연구 현장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며 교육받을 곳을 기다리고 있다.

5) 기독교 부모교육 구체적 실천하기

믿음의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훈련해야한다. 신명기 6:4 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 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부모들도 함께 협력을 얻어서 부모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교수 심층면담)

유아교육기관이 아무리 잘 해도 가정이 기본적이 되고... 가정이 메인이 되어야 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은 더더욱 가정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고 부모교육의 대한 부분도 정말 세심하고 다양하게 많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교수 심층면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위한 훈련들을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왜냐 하면 어린 시절의 분위기, 가정환경은 훗날 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가치관과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덕승, 1997).

기독교 유아교육이라는 것, 부모들에게도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

모들에게도 전혀 전달되는 신앙적인 부분이 없으니...

(H학부모 심층면담)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은 따로 갈 수 없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훈계하고(신명기 6:6-7절), 양육하여(잠언 22:6), 영적인 발달의 성장(에베소서 6:4)을 도우며, 유아들의 영혼구원(요한복음 10:10절)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6) 교회의 관심과 지원 증진하기

교회 부설기관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은 교회와의 연계가 어려움이 있었다. 제일 처음 교회가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설립했을 때의 목적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목적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러므로 더욱이 지금은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쏟아야 할 때라고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교회에서 이윤을 남기려는 것 말고 좀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선교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왜 자꾸 돈을 남겨서 교회 운영비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적을 다시 재점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H학부모 심층면담)

장로님에게 그냥 하나의 중책의 자리를 맡기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교육에 대해 고민도 좀 하고, 타 기관을 방문도 좀 해서, 어떤지 살펴볼 필요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살피고,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A원장 심층면담)

교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예산 속에 인재양성을 위한,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매년 적용될 수 있도록 노회와 시찰회, 당회 등 정시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교수 심층면담)

교회가 교육기관을 운영하면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철학, 그리고 나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재정만 지원해서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L교수 심층면담)

IV. 논의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교수와 원장,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재를 탐색하며,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재와 발전방안을 요약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실재의 교육목적은 복음전도의 목적, 신앙양육의 목적, 인성교육의 목적,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예배, 기도, 찬양을 부분적으로 포함하며, 성경이야기, 암송을 부분적 사용하며, 또 인성과 성품을 강조하고 기독교 절기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법 및 운영은 기독교적 성격 드러내기가 힘들며, 부족한 재정과 환경, 교사재량에 의존, 부족한 기독교 유아교육 이해를 극복해야 하며, 교회와의 부족한 연계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발전방안으로는 누리교육과정의 통합과 차별화하기, 물리적 환경 변화하기, 기독교 유아교사 양성 및 채용하기, 기독교 유아교육을 위한 연수 및 교육하기, 기독교 부모교육 구체적 실천하기, 교회의 관심과 지원 증진하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첫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목적, 내용, 방법, 운영의 면에서 기독교적 성격을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구체성과 방법적 정교성이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회가 기독교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을 부설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 실정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통합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목적이 분명하지만 현 기관에서는 교육목적이 불분명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었다. 또한 운영에서도 교회와 연계가 부족함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위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변화되어야 함이 보고되어 왔지만(김성수, 1996; 김정섭, 1988; 이선화·송영란, 1996; 정갑순, 1998; 정희영, 1998), 실천 되지 못하고 있음이 현장가운데 어려움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로 면담을 하면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였다. 또한 각 연구 참여자마다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해 이해와 해석이 달랐다. 이에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의 교사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의 후속 연구들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기독교 유아교육과 교수 2명, 원장 2명, 교사 4명, 학부모 4명으로 이루어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총 10개 기관으로 이루어져 면담을 하였다. 그러나 12명의 연구 참여자들로 구성된 질적 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었다. 추후 기관을 보강한 연구로 더 심도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교수, 원장, 교사, 학부모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후속 연구를 통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연구 참여자들로 함께 구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교회와 기독교 유아교육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방안들이 나오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불교 유아교육기관, 가톨릭 유아교육기관의 실태들을 함께 연구해 봄으로써 기관의 실태들을 바로 알고, 또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부족함을 보완함으로써 큰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사는 일반국가교육수준인 누리교육과정도 연구하고 분석해야 하며, 또한 더불어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한다. 이에 기초한 지원과 방안에 마련이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3). "기독교 세계관에서 본 아동관." 『한국일본교육학연구』 . 7(1), 159-174.
- 강은주(1998). "칼빈주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유아교육." 『유아교육학논집』 . 2(2), 69-86.
- 권미량(2009). 『유아교육과정』 . 서울: 청목출판사.
- _____(2012). "기독교 유아교육의 생태적 접근을 위한 고찰." 『생태유아교육연구』 . 11(2), 34-55.
- 김동춘(2008). "교사가 인식한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총신대논총』 . 28, 48-87.
- 김성수(1996). "기독교 유아교육의 원리." 『고신대학교 논문집』 . 23, 55-70.
- 김윤희(2008). "교회부설 어린이집의 기독교 유아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김정섭(1988). 『기독교학교 교육』 . 서울: 기독교학교협의회.
- 문순애(2010).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 서울: 창지사.
- 박갑숙(2009). "성품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 박덕승(1997). "기독교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실천방안." 『교수논문집』 . 11 147-186.
- 박신경(2002). "유아기의 종교성." 『신학과 목회』 . 17, 281-305.
- _____(2008). 『기독교 유아교육』 .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양승훈(1999). 『기독교적 세계관』 . 서울: 예영출판사.
- 오미영(2007).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이문철·이동숙·윤충열(2005). "교회 부설 유치원의 이용실태 조사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 . 7(1), 100-101.
- 이선희·송영란(1996).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설립된 유치원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총론』 . 10, 261-288.
- 이영숙(2001). "한국형 12성품 교육이 유아의 인성개발, 정서지능,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품저널』 . 1, 86-87.
- _____(2010). "한국형 12성품교육이 유아의 인성개발, 정서지능, 자기통제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성품저널』 . 1, 78-108.
- 이영옥(2003).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석사학위논문. 장로신학대학교.
- _____(2006, 4월).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의 이론적 기초." 『교회교육』 . 42-45.
- 이정미(2005).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유아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혜상(1994).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임희옥·유혜숙·서광일·김정준(2010).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한 유아교육하기』. 서울: 양서원.
- 정희영(1998). 『21세기 기독교 유아교육 방향모색을 위한 전략』. 서울: 한국기독교유아교육 연합회.
- _____(2007).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신앙과 학문』. 12(3), 283-315.
- 정희영·정희정(2005).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신앙과 학문』. 10(2), 169-211.
- 조미경(2000). "교회부설 유치원의 기독교 유아교육 실태 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조정아(2004). "한국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_____(2008). "고신대학교 부설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운영실태." 『고신대학교 아동연구소』. 17, 94-108.
- 조정아·조은진(2008). "한국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의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교사의 인식도 조사." 『아동학회지』. 29(1), 305-324.
- 최윤정(2006). "어린이 선교원의 현황과 기독교유아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한승중(2006). "기독교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Brummelen, H. V.(1996).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김도일 역). 『교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 기독교적 교수 학습방법. (김한연 역). 서울: 한국IVP.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Bushnell, H.(2004). [Christian Nurture] 『기독교적 양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원전은 1847년에 출판)
- Clark, R. E., Brubaker, J. Z, Roy, B.(1986). 『Childhood Education in the Church. Grand Rapids』: Moody Publishers.
- Comenius, J. A.(2007). [The great didactic] (정확실 역). 『대교수학』. 서울: 교육과학사. (원전은 1847년에 출판)
- De Jong, N.(1992). 『진리에 기초를 둔 교육』. [Education in the Truth] (신청기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원전은 1969년에 출판)
- Hull, J. E.(2003). Aiming for christian education, settling for christian educating, *Christian Scholar's Review*, 32(2), 203-220.